

“생산부터 가공까지 혁신”...해남군 ‘농어촌수도’ 실현

친환경 농업 확산·미생물 공급 개선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청년농 스마트 기술 2억여원 지원
특산물 고구마 첨단 진단체계 구축

해남군은 생산부터 가공, 연구개발, 안전까지 농업 전분야의 혁신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이끌어 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해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실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첫 단추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미생물 공급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토양 환경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고초균과 유산균 등 일반균종에 더해 밀 낚은 곰팡이병 예방 등 기능성 미생물을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포장재를 줄이는 개별 용기 지참 방식을 도입해 현장 효율성을 높인다.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발농업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사업도 기존 마늘과 양파 중심에서 배추, 감자까지 대상 작물을 대폭 확대한다. 주산지 공동경영체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지원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 균일화 기반에 확실히 청신호를 켜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청년농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총 2억8천만원을 투입해 승용형 정식기 등 노지 스마트기술 도입을 밀착 지원한다. 자율주행 키트와 자동관수, 스마트 방제 장비

등을 패키지로 보급해 기상 이변 대응 역량을 높이고, 228명이 활동 중인 청년농 모임체의 네트워킹 형성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가공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 기능성 배추김치와 반가공 고구마 등 자체 개발한 가공식품의 기술이전과 공정 표준화를 추진해 판로 개척에 나선다. 이와 함께 3억5천500만원을 투입해 수질·토양 정밀 분석 장비를 확충, 생산 단계부터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철저히 차단한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 역시 RT-PCR 등 2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병해충 진단실을 신규 구축하며, 덩이줄기썩음병 등 실시간 토양 진

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생육 예측 체계를 완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고히 다진다. 군은 단순한 일회성 생산 지원을 넘어 스마트 농업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아우르는 촘촘한 로드맵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계화 기반 확충과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전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입증하겠다”며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 중심 농정으로 농어촌수도 해남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할인 혜택 받으세요”

郡, 내달 23일까지 10% 할인

함평군은 18일 “다음 달 23일까지 지역 대표 봄 축제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내달 24일부터 5월 5일까지 12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사전예매는 티켓링크와 네이버 등 온라인 창구와 함평축제관광재단을 통한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돼 관람객들의 예매 편의를 대폭 끌어올렸다. 할인 적용 시 어른 6천300원, 청소년 4천500원

등에 구매 가능하며, 축제장과 지역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까지 제공돼 상권 활성화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특히 올해 축제 기간에는 생태 교육과 체험형 오락을 결합한 복합 놀이학습 공간인 ‘나빛파크’가 최초로 문을 열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나비 날리기와 먹이주기 등 다채로운 생태 교감 프로그램을 전면 배치해, 전국 최고 수준의 명예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미리 준비해 나비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마음껏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완도군은 최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다시마 분양성 시범사업 종자보급사업 행사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 ‘다시마 분양성’ 착수

육상 배양 후 어가 즉시 공급
1천여개 채묘틀 어촌계 보급

완도군이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수온 상승에 맞서 해상 ‘가 이식’ 과정을 과감히 생략한 혁신적인 다시마 양식 기술을 현장에 도입, 어가 소득 안정화에 승부수를 띄웠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고수온 등 해양 환경 변화로 기존 다시마 종자 생산에 제동이 걸리자, 육상 배양 후 곧바로 어가에 공급하는 ‘다시마 종자 분양성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전통적인 방식은 육상에서 종자를 생산한 뒤

바다에서 일정 기간 적응시키는 가이식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이어진 극심한 고수온 탓에 미역과 다시마 모조가 잇따라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하며 기존 양식 방식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군은 지난 2017년 연구·개발에 성공했던 ‘가이식 생략 종자 생산 기술’을 올해 현장에 전격 도입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시범 사업 행사를 열고, 금일읍과 청산면 등 6개 어촌계에 1천여개의 채묘틀을 일제히 보급했다. 가이식 없이 곧바로 바다에서 키워내는 이

종자는 전복 먹이용은 물론 식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침체된 지역 수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참여 어업인들은 해상 시험 양식을 통해 생육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군은 기술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미역과 곰피 등 다른 해조류 품종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보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 장기요양기관, 전국 평가 ‘최우수’ 획득

실버케어센터 등 3곳 A등급

나주시는 “최근 지역 장기요양기관 3곳이 2025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나란히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과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및 결과 등 총 4개 영역 45개 지표를 엄격하게 적용해 실시했다. 그 결과 관내 총 21개 장기요양기관 중 신설 3곳을 제외하고 나주실버케어센터와 덕인실버홈, 도솔실버타운 등이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

의 질적 우수성을 확고히 입증하며, 지역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특히 나주실버케어센터는 지난 1월29일 사회 복지 급식소 위생 및 건강 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윤병태 나주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다. 한운식 나주실버케어센터 대표는 “어르신들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온 요양보호사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따뜻함을 갖춘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



“전임 실패 눈감은 목포시장 후보들 비전 제시를”

정태관 문화연대 대표 공개 질의
무대용 비판...전략 마련 절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가 전임 시장의 재정 위기와 정책 실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목포시장 후보자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책임 있는 비전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18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침묵하는 목포시장 후보자들, 왜 회피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빼앗

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정 대표는 “전임 시장 동안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 매칭 사업 예산조차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전례 없는 1년간의 시장 공백으로 시장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전남·광주 행정 통합 등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 앞에서 후보자들이 전임 시장을 의식해 눈치 보기와 계산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정치에서는 결코 새로운 전력이 나올 수 없다”며 “도시의 미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전략 수립 ▲인구 감소와 경제·산업 침체, 전남·광주 행정 통합, 국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임기 내 실행 가능한 실질적 생존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시민들은 더 이상 눈치와 계산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일갈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 대불산단 ‘어선 건조 진흥단지’ 선정

국비 400억 확보...2029년 준공 목표

영암군은 18일 “대불산단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0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 전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테크노파크와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사진) 핵심 시설로 들어설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집약한 미래형 어선 건조를 전폭 지원하며, 국내 어선 건조업의 고도화

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확보된 400억원의 국비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과 첨단 장비 구축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진흥단지 지정은 대불산단 내 20여개 어선 건조사와 90여개 연관 기업의 혁신을 이끌며, 지역 조선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성공적인 센터 건립으로 지역 조선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어선 시장을 확고히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357농가에 쌀귀리 종자 지원

3억 투입 구입비 60% 원조
고품질 생산 단지 기반 조성

강진군은 18일 “쌀귀리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고품질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종자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종기 기름 등 기상 재해에 취약하고 종자값이 가장 비싼 쌀귀리 재배 357농가(1천38ha)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5천여만원 증액된 구입비의 약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 유일의 쌀귀리 육복합산업특구

위상에 걸맞은 거점 생산 단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지역 농업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독자적인 종자 산업 생태계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중앙정부 보급금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종 농가를 적극 육성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종자 생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상이변 속에서도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귀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구 이름에 걸맞은 명품 쌀귀리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 쌀귀리연구회 위원회 유통 관계자들이 쌀귀리 홍보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한편, 지난 2008년부터 본격 재배를 시작한 강진 쌀귀리는 현재 6개 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매·유통되며, 월동기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끄는 일등 공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